

해 외 출 장 결 과 보 고

1. 출장개요

- 가. 출장건명 : 지역단위의 순환농업 시스템 개발
 나. 출장목적 : 일본 지역단위 순환농법 시스템 조사
 다. 출 장 자 : 농업관측정보센터 부연구위원 정은미
 농산업경제연구센터 초청연구원 한혜성
 라. 출장지역 : 일본 야마가타, 니이가타
 마. 출장기간 : 2007. 12. 20(목) ~ 12. 24(화) (4박5일)

	이동상황	주요내용
12월20일	김포→동경(東京) →야마가타(山形県)	야마가타 나가이시(山形県 長井市) 도착
12월21일	야마가타 나가이시	○ 레인보우 플랜(지역자원순환 시스템) 방문 - 지역 자원순환 견학(퇴비 만들기와 이용) - 시민, 농가, 행정 등 참여 주체, 파트너쉽과 네트워크의 형태와 내용
12월22일	야마가타 나가이시 →니이가타 사사카미 무라(新潟県笹神村)	○ 니이가타 JA사사카미 - 자원순환형 농업 견학 - 지역주민과 생산농가의 협력 구조 - 자원 활용 비용 분담과 퇴비 활용의 현황과 과제 - 지역농업 실시의 문제점과 과제
12월23일	니이가타 → 동경	○ 식료와 농업에 관한 추진협의회 - 니이가타 아가노시, 사사카미 농협, 팔시스템연합회(지자체, 농협, 소비자단체)의 사업 개요 - 팔시스템의 산지 직거래 정책과 생산관리 - 지역 내 자원순환영농에 지자체, 농협, 소비자의 역할과 과제
12월24일	동경 → 김포	귀국

2. 출장일정 및 주요 면담자

□ 12월 20일(목) : 김포공항 출발/일본 동경 경유 야마가타 도착

□ 12월 21일(금)

○ 09:30-12:00 : 야마가타현 나가이시(山形縣 長井市)

- 레인보우플랜 추진협의회, 판매장(무지개 역) 및 퇴비공장 방문
사무국장 横山太吉 (よこやま たきち)

○ 14:00-16:00 : 레인보우 플랜 초대 설립자 면담

- 레인보우플랜 추진협의회 위원 菅野芳秀 (かんの しょう)

□ 12월 22일(토)

○ 야마가타(山形) → 니이가타현 아가노시(新潟縣 阿賀野市) 이동

○ 13:00-18:00 : 사사카미 농협(JA笹神) 방문

- 산지교류의 역사 및 지역농업 소개
- 두부공장, 퇴비장, 겨울무논 조성 단지 등 견학
판매교류과장 이시즈카 미쓰오(石塚美津夫)

□ 12월 22(일)

○ 10:00-17:30 : 아가노시 식농(食農)추진협의회 이사회 및 회의 견학

- 지자체, 농협, 팔시스템 생협연합회 45인 참가

○ 18:00-22:00 : 추진협의회 교류회 참가

□ 12월 23(월)

○ 니이가타현 아가노시 (新潟縣 阿賀野市) → 동경(東京) 이동

○ 14:00-17:00 : 팔시스템 산지직거래 본부 방문

- 팔시스템 산지직거래 전무 야마모토 (山本)
- 팔시스템 가나가와현 유메코프 이사장 사이토(齋藤文子)

□ 12월 24(화) : 일본 동경 출발/김포 도착

3. 주요 시사점

○ 지역 순환농업의 주체와 지향점

- 행정과 농협, 시민(소비자단체) 3주체가 물적·인적 순환을 통해 실현하는 농업을 말함.
- 레인보우 플랜은 ‘지역 소비자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’하는 지역 내 유통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함. 지역사회는 퇴비를 만들고 농민은 농산물 생산하며 행정(지자체)은 이 순환의 고리가 되는 시설운영의 주체가 됨.
- 사사카미 농협은 농민과 도시 생활자의 자주적인 연대를 목적으로 수도권 소비자단체와 물적·인적 교류를 하고 행정(지자체)은 지역 내 농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생산자와 소비자의 교류를 지원하는 체계임.

○ 지역 순환농업에서 생산자와 소비자의 관계

- 사사카미의 실천에서 가장 인상 깊은 것은 생협과 농협이 분리되지 않고 함께 공존한다는 것임.
- 생산자와 소비자가 물품거래만이 아닌 환경보존형 농업을 추진하여 도 농교류사업의 영향이 지역사회 환경보존으로 발전함.
- 또한 상품의 생산, 가공, 유통, 소비, 폐기까지 안심하고 안전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으며 그 중 판매물품의 1%를 기부하여 다양한 단체와의 정보교환 및 네트워크 구축사업의 활동재원으로 사용하고 있음.

○ 지역 식농협(식료와 농업에 관한 추진협의회)의 역할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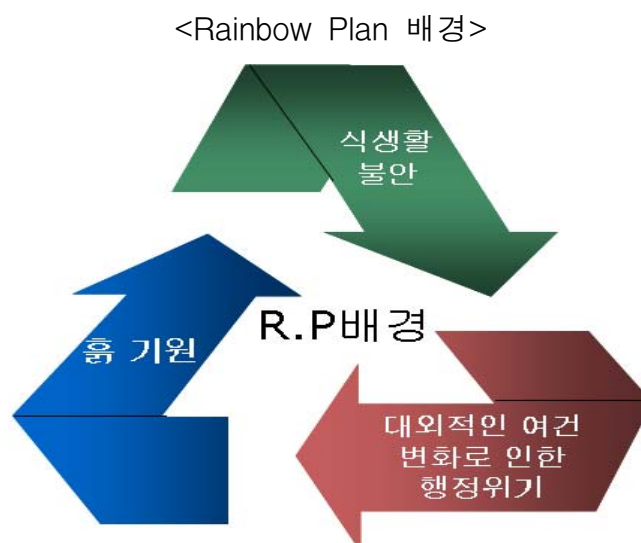
- 사사카미 마을의 농협, 소비자단체(생협), 지자체가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의 모습에서 농업을 유지·보전하려는 의지를 보며 농업의 희망을 발견함.
- 소비자단체(생협)의 물품 취급기준에는 미흡하더라도 그 지역의 농산물이 지역의 학교급식이나 공공기관의 식재료로 유통될 수 있는 시스템을 지역에서 구축할 계기를 제공하는 측면이 있음.
- 지역생협이 그 지역 친환경 생산자와 교류하고 친환경농산물을 지역에서 소비하는 실천이 필요하지만 나아가 관행농법을 조금씩 친환경농법으로 바꿀 수 있도록, 관행농법의 사회기준을 높여나가는 측면도 필요함.

4. 주요 내용

1) 레인보우 플랜(지역자원순환 시스템) 방문

○ 레인보우 플랜 프로젝트 계기

- 1989년 당시 GATT, UR 등 세계경제의 단일화된 시장에서 농업의 파탄 위기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지역경제를 재생하기 위해서는 지역농업과 지역사회의 연결이 불가피하다고 생각함(지역사회, 지역경제 문제).
 - 개방시대에 지역자립 경제 구축은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지역자급경제인 지산지소(地産地消)만이 GATT에도 견딜 수 있다고 확신함.
 - 한편, 농업에는 화학비료나 농약을 사용함으로써 토양의 힘이 약해지고 이를 회복시킬 자원이 없음(농업생산 문제).
 - 요즘 일본 어린이의 식생활은 심각한 수준임(먹거리의 영양성분 감소)
 - 지역특산물을 지역 내에서 소비하지 않음. 농축산물 모두 대도시를 거쳐 지방으로 들어옴(도매시장 구조). 대량생산·대량유통 시스템 하에서 다시 지역 내로 생산물이 들어옴(농산물유통 문제).
 - 지자체의 음식물쓰레기 처리 곤란(처리시설 노후)
- ⇒ ‘지역 소비자의 먹거리를 지역에서 해결한다’는 지역 내 유통을 통해 지역민의 건강을 지키고 농가소득을 향상시키고자 시도함.
- ⇒ 방법 : 지역사회는 퇴비를 만들고 농민은 농산물 만들기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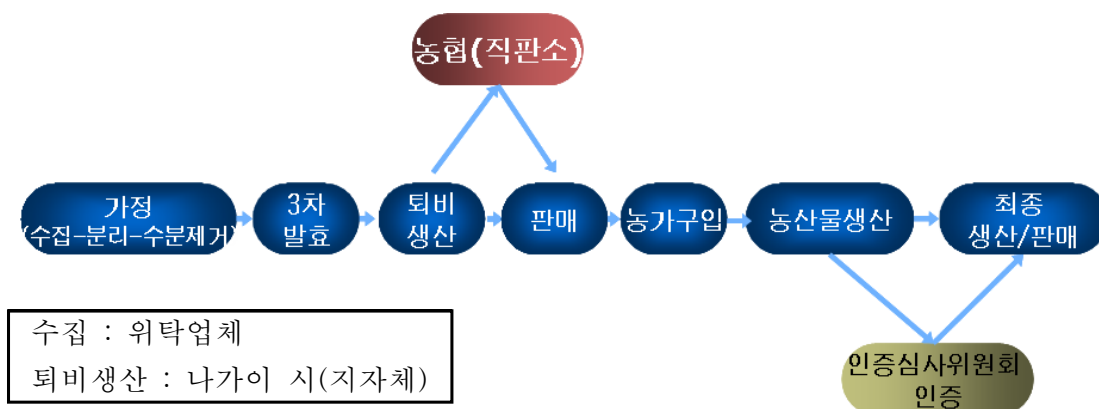
○ 레인보우 플랜

- 유기물 자원의 지역순환을 통해 지역자치를 도모하는 프로젝트임.
- 주목적은 유기물 자원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개선, 건강한 식생활, 농가 소득 증대임.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음식물 처리 사업이 아니라 지역 만들기, 순환농업, 주민자치 사업임.
- 일본 야마가타현 나가이시는 순환형폐기물의 재활용과 지역활성화를 성공시킨 지자체로 유명함.

○ Rainbow Plan 특징

- ① 인증마크: 농약 1/2 사용, 제초제 사용안함.
 - ② 나가이 시 9천 세대 중 도심지 5천 세대의 음식물쓰레기 수집: 227개소
 - ③ 나가이 시내 가정 음식물쓰레기와 축산 폐기물을 원료로 퇴비 생산, 유기농산물 생산.
- ♠ 퇴비공장 설치 : 설치비 6억 3천만엔(시 소유시설).
- 수분조직을 위해 쌀겨를 추가 투입함. 이를 통해 발효를 촉진하고 고품질 퇴비를 생산함.
 - 발효는 3차로 나누어 진행됨. 총 소요기간은 19일임.
 - 퇴비 비용: 241엔/10kg
 - 연간 1,100톤(음식물)+쌀겨= 1,200톤 투입, 연간 400~450톤 퇴비생산
- ♠ 가구당 음식물 쓰레기
- : 나가이 시 9,000가구 중에서 5,000가구¹⁾가 참여하여 연간 40kg 미만임.

④ Rainbow Plan 퇴비화 과정



1) 주 2회 음식물 쓰레기를 수집함. 서부지역은 월요일, 목요일, 동부지역은 화요일, 금요일 수집.

⑤ 퇴비공장에서 생산된 퇴비를 이용한 농산물은 레인보우플랜추진위원회의 인증심사위원회가 직접 농가를 방문하여 인증함.

⑥ 레인보우플랜의 목표는 음식물쓰레기→ 퇴비→ 농산물 생산→ 농산물 소비(음식물쓰레기 배출)하는 순환시스템 구축임과 동시에 레인보우플랜 시스템의 생산과 소비활동을 통해 토양과 사람이 함께 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임.

- 농촌에서 농산물 생산(퇴비 소비) ⇒ 도심지에서 퇴비 생산(농산물 소비)하는 구조가 최종 목표임. 이러한 연결구조가 순환 시스템임.
- 토양은 대량생산, 대량폐기의 장소가 아니라 생명의 원천을 만드는 것

<순환 시스템>

◎ 유기물 자원의 재활용

: 음식물쓰레기→ 퇴비→(농산물 생산·소비)→음식물쓰레기 ⇒ **토양순환**

◎ 농민은 신선 농산물을 서민에게 공급

: 농산물 생산↔농산물소비 ⇒ **사람 순환**

⑦ 나가이시는 지역의 쓰레기 배출 분석과 농산물 수급을 조사한 후 농가와 소비자의 신뢰 및 협력관계를 이끌어 냄. 이는 지자체와 시민들(시민단체)의 자발적인 참여와 상호 협동정신이 만들어낸 결과임.

- 이 프로젝트를 통해 음식물쓰레기가 34%나 감소함.
- 행정이 주도하는 사업에 단순히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시스템이 아니라 행정+지역 주민이 함께 하는 시스템임.
- 학교급식의 쌀은 이 프로젝트의 비료를 이용한 것임. 초등학교 교과서에도 소개됨.
- 6년 전부터 견학이나 강의에 자원활동가인 시민 가이드가 활동하고 이들은 레인보우플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자율적으로 레인보우 플랜 활동을 추진함(해외 42개국에서 견학 방문함).
- NGO 법인 : 2개 법인 발족(레인보우플랜 시민시장)
 - 퇴직자, 주부,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레인보우플랜 시민농장.
 - 레인보우 인증, 견학과 방문 등 교류회 거점인 레인보우플랜 시민시장.

<Rainbow Plan의 성과와 파급효과>

5,000세대 음식물 처리 ⇒ 음식물 쓰레기 34% 감소

시민들이 추진하는 ‘지역만들기’

환경 기본법 유리

농촌 ↔ 도시 상호 연결

○ 재정문제

- 1989년 레인보우플랜 초기 추진협의회 위원 50~60명이 시청에서 위촉.
- 초기 전체 재정은 60만엔이었으나 재정이 어려워져 현재 재정지원 전무한 상태임.
- 책 인쇄, 시찰료 중에서 일부를 운영비로 충당함.
- 음식물쓰레기 처리에 시 재정 1톤당 3만 엔이 소요되었으나 현재 퇴비사업소의 연간 1,100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 감소함. 퇴비판매로 인한 비용 상쇄 때문임(퇴비 400톤 생산, 241엔/10kg).

○ Rainbow Plan의 성공요인

- ① Opinion Leader의 노력: 지역 유지(농업인, 상공회의소 참여)의 네트워크로 프로젝트 시작됨.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상공회의소 소장이 추진함.
- ② 여성의 파워 : 지역 내 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음.
- ③ 사업추진이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노력한 행정의 결단 : 나가이시 기본계획에 ‘Rainbow Plan’과 함께 라는 문구(지역협동을 명시)가 들어감.

○ 음식물쓰레기 분리 사업 진행 과정

- ① 5천 세대 중 800명이 참가하는 3차 모델 사업 실시함. 지역을 선정하여 사업 설명을 실시함. 기간은 1개월간 봄, 여름, 가을 시행함.
 - 1개월간 시행 후 결과: 반응이 좋음. 설명회 후 타 참가 신청이 증가함.
- ② 나가이 시내 전 시민 세대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함. 행정+추진협의회 모두 참가함.
 - 여성단체의 참가, 홍보 활동 활발.

○ 향후 과제

- ① 이념과 이상을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라는 현실적인 갭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함. 시민운동을 통해 당당한 농촌지역의 환경·농업·

식량·복지 정책 만들기

- ② 조직 활동의 신뢰도를 어떻게 향상 시킬 것인가 하는 문제
 - 어떻게 참가자들 모두의 이익을 조합시킬 것인가.
 - ③ 시민운동과 행정과의 연계성 증대
 - ④ 10년이 지난 퇴비 공장의 노후화 문제 - 관리 문제
- 기타 NPO 법인은 2개에 불과함. 생산 및 유통 담당 2개

<Rainbow역 시민시장>



★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 방문

- ① 시 직원 3명과 실버인재센터 직원 3명 등 총 6명 근무.
- ② 왕겨+음식물 쓰레기를 발효하여 퇴비생산.
- ③ 폐기물 자재 및 자갈 분리
- ④ 일본 전체 음식물쓰레기 처리시설이 과거 30~40개 있었으나 현재 거의 가동이 중단됨.
 - 음식물쓰레기 처리만 고려하는 시설은 의식부족으로 사업이 실패함(투

입·산출의 비용이 누적되면서 지자체 재정부담으로 문제가 됨).

- 나가이 시는 시민 모두 퇴비생산을 위해 필요한 과정으로 인식함에 따라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당연하며 필요한 사업으로 인식함.

⑤ 시설 가동 초기에는 농협 RPC에서 왕겨를 무상 제공하였으나 요즘은 구입함(친환경농업 확산으로 왕겨 수요 증가).

⑥ 발효 비료(퇴비)는 1톤에 4,000엔 수준에 농가에 공급됨.

<Rainbow 센터>



⇒



⇒



⇒



⇒





⇒



⇒



2) 레인보우플랜 창시자 菅野씨와 면담

○ ‘지역이 주역이다’, ‘지역순환농업으로 출발’을 출판

- 농업이 희망이 될 7가지 조건에 착상함.
- 첫째, 생명계의 원리에 따른 농업
- 둘째, 다양성, 협력에 의한 지역사회 실현 : 여성을 비롯하여 모두 행복하며 서로 존경하는 지역사회
- 셋째, 지역 자립과 자급 : 농촌은 도시의 요구를 만족시키는 파트너가 아니라 농촌지역 나름대로 행복하고 촌락다움을 찾는 것임. 촌락이 발전하여 도회지가 되는 것은 더더욱 아님.
- 넷째, 민주주의 : 서로 함께
- 다섯째, 지구적 시점에서 지역을 고려함
- 여섯째, 교류 : 도시, 촌락, 지역이 교류하며 함께 다양성 인정해야 함
- 일곱째, 가족농업을 기초로 함 : 농업 상품화를 추구하는 기업농은 지속 불가능함.

○ 현재 일본 농업의 대안으로 레인보우플랜을 구상함.

- 배경 : 쇠퇴하는 일본농업 및 농민운동의 현실에서 자신이 살아갈 자립적인 지역 만들기로부터 희망을 찾고자 함.
- 방법 : 말 → 실천, 비판과 반대운동 → 대안과 건설

- 차이를 강조하는 비판과 반대보다 차이가 있지만 공통점(희망)을 연결하는 대안을 건설하는 것.
- 무지개(레인보우) 색깔(차이)이 공통으로 다리(희망)를 만든다는 의미는 서로 장점을 살리는 방법(부정→긍정)을 통해 시민뿐만 아니라 행정이나 농협도 참가하게 됨.

○ 현재는 시대 전환기이며 미래를 위해 함께하는 것만이 대안임.

- 생산력 향상에 집중한 전 시기와 비교하여 환경문제나 절망적인 빈곤 등 생존을 위해 새로운 요인이 필요

3) 니이가타 JA사사카미

○ 사사카미 농협

- 농지면적(2,000ha)의 90%이상 벼농사 단작지대의 소규모 미합병 조합
- 인구 9600명, 조합원 1,500세대 중 700세대가 벼농사. 30여 년 전부터 팔 시스템(전 수도권코프사업연합)에 감, 떡 등 산지 직거래로 공급함.
- 현재 유기인증을 취득한 농가는 34명이며 2000년에는 유기, 저농약이상 재배면적이 586ha로 벼 재배면적의 약 40%를 차지하고 있고, 50%가 유기퇴비를 살포하고 있음.

○ 사사카미 농협의 소비자단체와 교류 계기

- 1978년 농림수산성 쌀 재배면적 강제축소 지침(減反)정책에 사사카미의 감반율은 18.7%로 전국 최저를 기록함. 사사카미 소식이 전국에 알려지고 동경지역 소비자단체가 쌀을 직거래하기 위해 방문했지만 농협이 독자 쌀 판매가 불가능하던 시절이라 사람교류부터 시작하자고 의견을 모아 각 농가에 민박과 스키체험, 여름캠프등과 같은 교류사업을 시작함.
- 생산자도 가격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인 떡을 수도권코프사업연합에서 제안해 떡공장을 건설하고 정월초하루 문에 장식하는 ‘시메카자리’를 손으로 만들어 떡과 함께 공급하는 직거래물품으로 개발함.
- ‘시메카자리’ 제작은 1984년부터 지금까지 지속되고 있음. 우리나라 짬뽕음료와 같은 이 물품은 1개월 간 60여명의 70~75세 어른들이 참여하고 수입은 3천만 엔 정도임. 스스로 일을 해서 돈을 벌게 된 어르신들이 밤을 새서 만드는 작업을 하는 바람에 자식들이 부모 잡는다고 농협에 항의 전화하는 에피소드도 있었음. ‘시메카자리’ 직거래 사업이 사사

카미 농민에게 희망이 되었고 소비자는 안전,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직거래 만남의 시작이 됨.

- 1986년부터 수도권코프사업연합 470여명 조합원이 사사카미에서 재배면적 축소로 경작을 포기한 논에 모내기과 벼베기 체험 행사를 시작함. 당시 모내기 논 앞에 새겨진 글귀는 “식량자급만큼 강한 방위는 없다”임.
- 1988년부터 저농약쌀의 직거래가 가능해짐에 따라 1989년 지역 유기퇴비센터를 만들고 1990년 ‘유기 마을 사사카미’를 선언함.
- 1993년 냉해로 쌀과동 시, 사사카미 지역은 유기퇴비를 이용해 흙을 살려놓았기 때문에 벼수확률이 좋았고 수도권코프사업연합에 전량수매하여 조합원들에게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됨.

<JA 사사카미 떡공장과 시메카자리 출하>



○ 행정과 농협, 소비자단체가 연계한 교류

- 지역환경을 좋게 하려면 생협이든 농협이든 행정과 같이 해야 한다는 인식아래 20여 년 전부터 행정과 교류를 시작함.
- 1990년 사사카미(지자체)가 사사카미 농협의 의견을 받아들여 전국 최초 ‘유기사사카미(有機 笹神) 선언을 함.
- 2000년 5월, 사사카미 마을(지자체), 사사카미 농협, 수도권코프사업연합(소비자단체)이 “먹을거리와 농업에 관한 기본협정”을 체결하고 이를 추진하기 위한 주체로 협의회를 구성함. 기본협정이 추구하는 바는 ①사사카미를 영구적인 식량기지로 만들자는 것 ②교류를 더욱 발전시키자는 것 ③소비자, 생산자의 공동인식을 토대로 한 상품을 개발하자는 것임. 이를 토대로 협의회는 직거래물품을 생협과 공동으로 개발하였는데 그 중에 특이한 것이 두부공장 (주)사사카미임.
- 일본 농정의 전작으로 쌀의 대체작물로 콩을 심기로 함. 전작작물로 콩을 선택한 이유는 인스턴트문화에 젖어 있는 젊은이들이나 요즘의 음식문화에 대한 우려, 쌀과 더불어 두부나 전통발효식품들의 원재료가 되는 콩이야말로 꼭 필요하다는 인식이었다고 함.

- 사사카미에서 생산된 콩을 원료로 수도권코프사업연합, 소고생협, 수도권코프사업연합에 두부를 만들어 공급하던 (주)공생식품이 함께 자체개발식품으로 두부를 개발하기로 함.

○ 소비자의 출자로 생산지에 만든 두부공장

- 2001년 전작지 200ha에 콩을 재배하기 시작함(사사카미 지역 논 2,000ha 중 600ha는 생산조정 상태임).
- 소비자와 농협이 가공을 통해 농가가 직접 가격 결정하고 지역 내 고용을 창출하는 두부공장을 설립함.
- 농산물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(지역 농산물, 깨끗한 물, 두부를 생산할 때 화학 약품을 이용하지 않음)가 있었기 때문에 생산자, 소비자의 협력을 얻을 수 있었음.

○ 사사카미 두부공장

- 토지는 지자체 소유로 농협이 임대하고, 건물은 농협 55%, 공생식품 15%, 팔시스템연합회(생협) 20%의 지분으로 소유함.
- 사사카미 두부공장은 시설(농협)+기술제공(공생식품)+출하처(생협)의 3주체가 공동운영하는 주식회사 형태임. 주식회사를 설립한 이유는 정부지원을 받기 위해서임(농협이 생산하면 정부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).
- 두부 가격 1모에 100엔으로 일반 두부보다 3배 정도 비싼 가격임. 두부공장에서 소비자를 대상으로 체험실을 운영하며 콩 생산에서 가공까지 국산 두부의 가격에 대해 소비자를 납득시킴.
 - 두부원료는 100% 현지에서 생산함. 용기두부는 동경, 북해도에 납품함.
 - 시설비는 25억원(출자금 2억, 현으로부터 1억 지원)
 - 두부 비지는 퇴비로 이용(지역순환)
 - 두부형태: 용기두부(85%) + cut 두부(15%)
 - 콩 저장: 농협이 구매하여 전농시설에 저장(콩 구매가 60kg당 13,000엔 중 정부 보조금 50%).
 - 콩 가격결정: 농가수취가격은 유찰가격을 통해 정부에서 결정
- 현재 실제 가동률은 1일 4시간 30분, 연간 평균 1만 4천모 생산, 대두 구매 연간 205톤). 최대 생산량은 1만 7천모(대두 60kg = 약 150모 생산).

<사사카미 두부공장>



○ 사사카미 퇴비공장

- 1989년 퇴비공장 설립
- 1993년 냉해로 인해 적자발생. 이 시기에 일본 전체가 쌀 생산 감소로 인해 쌀 부족현상이 발생함. 그러나 사사카미 퇴비공장의 퇴비를 쓴 농가들은 생산량 감소가 없었음.
- 설립 당시 희망자는 5ha에 불과했으나 냉해 파동 이후 150ha 살포
- 사사카미 왕겨 보관소 15개
- 쌀을 생산하려면 퇴비공장은 반드시 필요함.
- 타지역 퇴비시설은 ‘처리’만 생각하지만 사사카미 퇴비공장은 지역 내 물질 순환시스템을 추구함.
- 퇴비공장 시설비: 4억엔(고정 자산은 행정이 투자, 경영은 농협, 작업은 농가가 참여함).

<사사카미 퇴비공장>



⇒



⇒





4) 일본 팔시스템 연합회(전국 16개 단위생협 연합회) 산지직거래 사업부(GPS) 방문 및 팔시스템 연합회의 생산지 정책

○ 회사개요

- 주식회사 GPS 지피에스(G-Green, P-Plaza, S-System의 의미)
- 1992년 3월 「수도권코프사업연합」과 「주식회사 젠츠(全通)」의 공동출자로 설립하여 2006년 「팔시스템」 자회사로 편입함.
- 주요업무 : 팔시스템 생협연합회의 직거래 청과·쌀 기획·입고·판매 및 관련생협에 대한 물류업무, 농산물가공품의 장부 정리, 기타 농업관련 자재의 개발 보급 판매 등
- 자본금: 5, 100만엔, 사업고: 200억 3백만 엔(2005년 실적), 종업원 33명

○ GPS의 이념

- 환경보전형 농산물의 유통시스템을 구축하고, 일본농업의 재생을 통해 “마음이 풍요로운 마을 만들기”에 공헌한다.

○ GPS의 사명

- 팔시스템그룹의 시스템 직거래 추진
- 먹을거리의 안전·안심 푸드시스템 구축
- 팔시스템의 식량농업정책 추진
- 생산자와 소비자, 도시와 농촌의 연대를 지원한다
- 소비자의 구매대리인, 생산자의 판매대리인으로써 직거래 추진

○ GPS의 비전

- 일본 농업의 회복을 통해 소비자는 안전한 먹을거리와 풍부한 자연을 안심하고 향유할 수 있다.
- 품질·취급량, 고객 만족 면에서 일본 최고가 되는 환경보전형 농산물

유통의 전문회사로 성장한다.

- 사원은 높은 윤리의식과 전문성, 노동의 의미를 알고 효과적으로 일한다

○ 팔시스템의 생산지 정책

- 2003년 팔시스템 선언 발표함. “ 지금부터 산직(직거래)과 환경에 대한 가치를 분명히 하고, 개별방문의 새로운 무점포사업을 하며, 조합원의 생활의 과제 해결을 위한 생협으로 매진한다”

○ 팔시스템 상품의 특징

- 5가지 원칙 : 조합원 참가에 의한 물품개발, 산직 직거래, 환경중시,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물품, 물품정보의 제공임.
- 산직직거래의 원칙 : 생산자와 산지가 분명해야 함, 재배방법 및 출하기준이 분명하며 재배이력 추적이 가능할 것, 환경보전형 자원순환형 농업을 추구할 것, 생산자, 조합원의 교류를 할 것 등의 4가지임.

○ 팔시스템 상품의 구성과 농산물품의 구성

- 모든 생협은 자기 나름대로 물품취급기준을 가지고 있다. 그 기준에 따라 물품구성이 만들어지는데 피라미드 구조를 가짐.(한국처럼 아주 제한된, 엄격하다는 판단과 협소하다는 판단이 있을 수 있는데, 기준으로 물품을 취급하는 경우는 드물다)
- 첫째, “THE FOOD”. 피라미드 가장 위쪽에 위치하는 최고 브랜드로 팔시스템이 개발한 직거래 유기 농산물, 친환경, 농업재생, 식품안전을 내걸고 개발한 물품임. 산지-가공-유통-공급-포장재 회수까지 팔시스템 생협이 추구하는 이상적인 순환시스템을 지닌 물품군임. 사업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%에 지나지 않는다.
- 둘째, NB(national brand) 물품보다 우수하거나 가격경쟁력이 있는 물품으로 CO-OP 표시가 있음. 직거래이면서 저농약 저화학비료 또는 국내산 밀가루빵, 국산 원료주스 등임.
- 셋째, NB(National brand)이거나 CO-OP물품 중에서도 가격경쟁력이 있는 필요성이 높은 상품임. 압도적 다수에 의한 공동구입과 물류로 가격저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.
- * 일본 사회에서 생협이 NB물품을 취급하는 것의 의의는 과소화가 진행되는 지역사회에서 고령자, 단독세대, 젖먹이 육아 세대들에게 (수도권과 다름없는 질을 가진) 생활에 필요한 물품, 물자를 집 앞까지 공급하

겠다는 조합원들의 필요성과 편리함을 중시한다는 것임.

- * 조합원의 협동으로 이루어진 물품사업인 만큼 생활상 필요한 물품들을 생협을 통해 모두 구입 가능하도록 하는 게 기본이라는 전제(여기엔 조합원, 임직원 모두 저항감이 없는 듯)로 있으며 NB로 얻은 이익률로 직거래 사업의 높은 원가를 보전하는 경영상 필요도 존재함.

○ 팔시스템의 “공개 확인회”(물품산지 조사기능)

- 생산자와 조합원 2인으로 구성된 독자적인 물품 취급 전 조사활동 시스템임. 2006년부터 70개 산지에서 공개확인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생산자는 재배이력, 특징을 공개하고 조합원은 초급/중급으로 나뉘어진 감사인 강습회를 수강하고 참여함.
- 생산자가 제출한 여러 가지 재배이력표를 확인하고 현장을 둘러보며 마지막으로 감사인의 소견발표까지 활동으로 구성됨.

○ 생산자·소비자협의체(생소협)의 구성

- 직거래 활동의 과제를 생산자 소비자 쌍방의 노력으로 해결하고 농민과 도시 생활자의 자주적인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1990년 2월에 설립이 됨.
- 115개의 산지와 15개 단체로 구성됨.
- 설립 당시 15개 생협의 재배기준을 통일하는 일을 도왔음.
- 생소협은 생산자부회에 과수부, 쌀, 야채, 계란, 축산부회를 두고 있음.
- 생산자, 조합원이 함께 참여하는 “논생물조사”활동도 하고 있는데 도시의 아이들이 논을 생태를 직접 체험하면서 감수성을 키울 수 있는 활동임.